

No.20160601-001

제목: 자살예정일: 7일 간의 수수께끼

저자: 아키요시 리카코

페이지수: 267

장르: 소설

출간일: 2016년 04월 28일



<내용소개>

아빠의 죽음에 의문을 품은 딸을 중심으로 펼쳐지는 미스터리

아빠의 갑작스러운 죽음에 슬퍼하던 여고생 '루리'는 아름답고 강인한 새엄마가 아빠를 살해한 것이라는 의문을 품게 된다. 3억엔의 생명보험금, 유산, 순조롭게 운영되던 레스토랑 모두 새엄마 '레이코'가 관리하게 된 데다가 마치 바라왔던 듯 사업에 적극적으로 뛰어드는 모습이 수상했기 때문이다. 경찰은 타살 증거가 없다고 하고, 주위 사람 아무도 새엄마를 의심하는 루리를 믿어주지 않는다. 하지만 루리는 나이 차도 많이 나고 전처와의 사이에서 낳은 딸까지 있는 남자와 결혼한 것부터가 재산을 노렸기 때문이라 확신한다. 루리는 자신의 아빠를 죽인 것이 분명한 여자와 한 집안에서 같이 살아갈 수는 없다고 생각하며 '자살'이라는 극단적인 방법을 통해 아빠의 억울한 죽음을 알리고 계모의 죄를 고발하기로 결심한다. 그리하여 자살 명소로 알려진 깊은 산속에서 죽으려고 하던 그 때, 루리의 눈 앞에 '히로아키'가 나타나 제지한다. 소년은 루리에게, 레이코가 아빠를 죽였다는 증거를 함께 찾아보자고 말한다. 우선 시도해보고 아무 것도 찾지 못하면 그 때 자살해도 늦지 않다는 것이다. 루리는 소년의 제안을 받아들인다. 미뤄진 루리의 자살예정일은 앞으로 6일 후. 이 작품은 일주일이라는 제한 시간 내에 진실을 밝혀 나가는 이야기다. 히로아키의 도움으로 계모의 메일 패스워드를 알아내 내용을 읽어보는 등, 도움이 될 만한 것들을 찾기 시작한다.

이 작품은 총 7개 파트로 나뉘어져 있으며 각 제목은 대안, 적구, 선승, 우인 등 길일 또는 흉일을 나타내는 용어로 되어있다. 과연 자살예정일이 오기 전에 루리와 히로아키가 그들이 추측을 뒷받침 해줄 사실들을 발견해낼 수 있을지 흥미진진하게 전개되며, 후반에는 모든 이의 예상을 뒤엎을 반전도 마련되어 있다. 서스펜스 요소 외에 루리가 자신에게 닥친 부모의 죽음을 받아들이고 극복해나가는 부분에서는 성장 소설의 묘미를, 유령인 줄로만 알았던 히로아키의 진짜 정체와 속마음이 밝혀지는 부분에서는 풋풋한 청춘 소설의 재미를 느낄 수 있다. 또한 루리의 친모는 파티셰, 친부 또한 요리 일을 거쳐 푸드 프로듀서로 이름을 알린 뒤 레스토랑을 개업한 요식업계 사람이며 둘 다 풍수지리에 관심이 많았다고 설정되어 있다. 이 설정 덕에 곳곳에 음식과 풍수 묘사가 등장하여 색다른 즐거움을 준다.

제목과 도입부의 설정은 비극으로 끝날 것 같지만, 산뜻하고 밝게 마무리 된다. 미스터리 장르가 풍기기 쉬운 마니아적인 느낌 없이, 남녀노소 연령대에 상관없이 대중적으로 읽힐 만한 소설이다.

<목차소개>

첫째 날: 대안(大安)

둘째 날: 적구(赤口)

셋째 날: 선승(先勝)

넷째 날: 우인(友引)

다섯째 날: 선패(先負)

여섯째 날: 불멸(仏滅)

일곱째 날: 대안(大安)

<저자소개>

아키요시 리카코

효고현에서 태어났으며, 와세다대학 제 1 문학부를 졸업하였다. 로올라 메리마운트 대학원에서 영화·TV 제작 석사를 취득. 도서관사서로 근무한 경력을 갖고 있다. 2008 년, 〈눈의 꽃〉으로 제 3 회 Yahoo! JAPAN 문학상을 수상하였으며 2009 년에 수상작을 포함한 단편집 《눈의 꽃》으로 데뷔하였다. 2013 년 발표한 《암흑여자》가 큰 화제를 모으면서 기대 받고 있는 신예이며 기타 작품으로는 《사자는 방과후에 돌아온다》, 《성모》가 있다.

No.20160601-002

제목: Are you Teddy?

저자: 가토 미아키

페이지수: 348

장르: 소설

출간일: 2010년 10월 13일



<내용소개>

순직한 형사의 혼이 들어 있는 곰 인형&평범한 24세 여성 콤비의 티격태격 사건 해결기

다소 예스러운 이름을 가진 24세 여성 '카즈코'는 포근하고 따뜻한 느낌이 드는 물건이라면 뭐든 좋아한다. 카즈코는 열심히 아르바이트를 하며 언젠가 자신의 마음에 드는 잡화를 진열해 놓은 카페를 여는 것이 꿈이다. 그녀는 언제나 제대로 말도 안 하고 방귀로 대답을 대신하는 아버지, 환경을 생각한다며 행동하지만 주위에서 보면 낭비자인 어머니, 헤비메탈에 심취해 있으며 직장에서는 아주머니들의 아이돌 대접을 받는 오빠 등 멋진 구석이라고는 조금도 없는 가족을 향해 깊은 한숨을 쉬지만, 정작 본인도 그들을 쏙 빼 닮았다는 사실은 깨닫지 못한다.

어느 날, 카즈코는 다이칸야마의 플리마켓에서 밀크티 빛깔의 봉제 곰 인형을 보고 한 눈에 반해 구입한다. 집으로 가져와 이름도 붙여주고 혼자 말도 걸고 있었는데, 갑자기 누군가 답한다. 전혀 귀엽지 않은 목소리로 곰 인형이 말을 하는 것이다. 깜짝 놀란 카즈코에게 인형은 자기 이야기를 털어놓는다. 자신은 '야스오'라는 이름의 형사이며 어떤 사건을 조사하다가 죽고 말았다는 것. 반년 전쯤, 공장에서 도시락을 만들어 납품하던 타카이 부부가 캠프장에 세워진 차 안에서 죽은 채 발견되었다. 자살로 종결되는 듯 했으나, 야스오는 말길 친척도 없는 상태에서 고작 5살배기 아들만 세상에 남겨두고 목숨을 끊었다는 데 의문을 품는다. 다시 찾은 현장에서 절벽 밑으로 떨어지려는 아이의 곰 인형을 발견해 주우려고 했는데 순간 누군가에게 떠밀려 떨어져 죽고 말았다. 그리고는 타카이 부부 아들의 곰 인형에 빙의해 부활했다는 것이다. 야스오는 카즈코를 통해 어떻게든 수사를 계속 하려 설득한다. 난색을 표하던 카즈코는 점차 진실을 밝혀내고 야스오를 성불시키기 위해 적극적으로 임한다.

아저씨 형사의 혼이 쓰인 귀여운 곰 인형과 콤비를 이뤄 사건을 해결해나간다는, 기존의 탐정 소설과는 전혀 다른 캐릭터와 스토리가 오락적 재미를 더해준다. 덕분에 2015년에는 일본에서 4부작 드라마화 되어 방영되기도 했다. 뿐만 아니라 인간관계에 대해서도 진중하게 다뤄 독자들과 많은 사랑을 받았다. 주인공 카즈코는 초반에는 항상 허둥지둥한 모습이지만, 불평 불만을 해대면서도 사건 해결을 위해 열심히 뛰어다니며 결정적인 도움을 주는 호감형 인물로 변화 및 성장해나간다. 마지막엔 드디어 야스오가 성불 직전에 놓이게 되는데 과연 성공할 수 있을지는 지

켜봐야 할 것이다. 겉과 속이 다른 곰 인형과 평범한 듯 특이한 여자로 구성된 이색 콤비의 <테디 시리즈> 첫 번째 이야기를 책으로 만나보길 바란다.

<목차소개>

제 1장: 이 아이는 우리 아이

제 2장: 움직이다

제 3장: 일도 변비도

제 4장: 아 유 테디?

<저자소개>

가토 미아키

1966 년 도쿄에서 태어났다. 2003 년 <인디고의 밤>으로 제 10 회 소겐추리단편상을 수상하며 데뷔하였다. 스타일리시한 묘사와 엔터테인먼트성을 내세운 작품으로 주목 받고 있다. <인디고의 밤> 시리즈는 TV 드라마화, 무대화 되어 호평 받았다. <인디고의 밤>시리즈에는 《인디고의 밤》, 《초콜릿 비스트》, 《화이트 크로우》, 《D 컬러 베케이션》이 있다. 그 외 작품으로는 《대걸레 소녀》, 《바람이 불면》등이 있다.

No.20160601-003

제목: '인간'을 갈고 닦다: 인간관계를 호전 시키는 일곱 가지 마음가짐

저자: 타사카 히로시

페이지수: 254

장르: 인문

출간일: 2016년 05월 19일



<내용소개>

마음의 기법을 통해 인간관계를 좋게 바꿀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는 책

일반적으로 '존경 받아 마땅한 인물'로 꼽히는 위인들은, 인간의 역사를 바꿔버릴 만큼 놀라운 직업적 성과를 이뤄냈거나 결점이 거의 없는 사람들이다. 결점이 거의 없는 사람들에는 주요 종교의 창시자들을 비롯하여 널리 선행을 베푼 이들이 포함된다. 무수한 고전들 역시, 우리가 평생에 걸쳐 스스로를 갈고 닦아감으로써 도달해야 하는 모습을 '결점 없는 인간'으로 굳히는 듯하다. 그런데 가까운 주위를 둘러보면, 많은 사람들의 호감과 사랑을 받는 인물들이 언제나 완벽하고 흠 없는 인간은 아니다. 게다가 뛰어난 사람들의 이야기와 고전들을 읽는다고 그 안에 담긴 역량이 자기 것이 되지도 않는다. 우리는 각자의 삶에 더욱 충실하게 위해 어떤 인간상을 목표로 삼고, 어떻게 수행해 나가야 하는 것일까?

이 책의 부제는 '인간관계를 호전 시키는 일곱 가지 마음가짐'이다. 즉, 인간을 연마한다, 즉 갈고 닦는다는 것은 '죄 없는 인간이 되겠다'는 뜻이 아니다. 이는 인간관계 속에서 인간으로서의 나 자신을 연마하고 성장해 나가자는 뜻이다. 저자는 본문에서 먼저 죄를 짓고 단점이 있고 미숙한 자기 자신을 포용하며 살아나가기 위한 방법을 차근차근 설명한다. 우선 고전을 읽을 때 세 가지 전제 조건을 이야기한다. 첫째, 하나로 통일된 뛰어난 인격 완성이 아니라 내면에 자리한 다양한 인격을 때와 상황에 맞게 적절히 사용할 수 있도록 길러주는 것이다. 둘째, 자기 마음속 작은 에고를 버리려고 하지 말고, 그 에고의 움직임을 주시하면서 또 하나의 자신을 키워간다고 생각해야 한다. 그리고 셋째, 고전에서는 이상적인 인간상이 무엇인지 배울 것이 아니라 그렇게 발전해나가기 위한 '구체적인 수행법'을 익히고자 해야 한다.

가장 좋은 수행 현장은 일상에서 마주하는 '인간관계'다. 무지와 불신, 반목과 반말, 대립과 충돌, 혐오와 증오 등의 감정을 대처하고 풀어나가는 과정이 인간을 연마하고 인간적 능력을 높일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인 셈이다. 그러나 본인의 심리 상태가 너무 힘들어질 수도 있으므로 저자가 알려주는 7가지 기법이 유용해지는 것이다. 그 기법은 자신의 결점과 죄를 억지로 없애려 하지 말고 먼저 인정하기, 적극적으로 타인에게 다가가기, 지금의 자신이 옳다고 정당화하는 작은 에고의 움직임 알아채기, 싫어하는 사람을 피하지 않고 정면으로 직시하며 받아들이려 해보기, 말의 힘과 무서움을 인지하며 사용하기, 헤어져도 심리적인 관계를 유지하기, 만남의 의미를 깊이

생각하기 등이다.

인간관계를 통해 인간으로서의 자신을 연마하고 점차 성장해나간다는 사고방식이 담겨 있는 책으로, 스스로를 돌아볼 시간과 타인과의 관계 호전이 필요할 때, 도움을 줄 것이다.

<목차소개>

인간관계가 호전되는 <마음의 기법>

제 1의 <마음의 기법> - 마음 속으로 자신의 죄를 인정한다

제 2의 <마음의 기법> - 먼저 말을 걸고, 눈을 맞춘다

제 3의 <마음의 기법> - 마음 속의 <작은 예고>를 발견한다

제 4의 <마음의 기법> - 그 상대를 좋아하게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제 5의 <마음의 기법> - 말의 무서움을 알고, 말의 힘을 살린다

제 6의 <마음의 기법> - 헤어져도 마음의 관계를 끊지 않는다

제 7의 <마음의 기법> - 만남의 의미를 깊이 생각한다

<인간을 연마하다>의 진짜 의미

다시 한 번 <인간을 연마하기>를 바라는 독자들을 위해서

<저자소개>

타사카 히로시

1951년생. 1974년 도쿄대학을 졸업하고 1981년 동 대학원을 수료하였다. 공학박사(원자력 공학)
1987년 미국 싱크탱크 바텔 기념연구소 객원 연구원, 1990년에는 일본 종합연구소의 설립에 참여하고 대표이사 등을 역임하였다. 2000년 타마대학 대학원의 교수로 취임하였으며 같은 해 싱크탱크 소피아뱅크 설립 및 대표로 취임하였다. 2005년 미국 Japan Society 에서 US-Japan Innovators로 선정됐다. 2008년 세계경제포럼(다보스 회의) Global Agenda Council 의 멤버로 취임, 2010년 세계현인회의 부다페스트 클럽의 일본대표로 취임, 2011년에는 동일본대지진에 따른 내각관방참여로 취임하였다. 2013년 <현실을 변혁할 7개의 지성>을 배우는 장 <타사카 학원>을 열었다.

No.20160601-004

제목: 혼자서도 잘 하는 아이로 키우는 방법

저자: 미노우치 켄지, 타카하마 마사노부

페이지수: 224

장르: 교육

출간일: 2016년 05월 28일



<내용소개>

자립적이고 배려심 강한 자녀로 키울 수 있는 인공위성 맘 스타일의 육아법

부모들은 누구나 자신의 아이를 훌륭하게 키우고 싶다. 각 가정마다 올바르게 여기는 훈육 방법은 다르지만, 결국 사랑하는 자녀가 이 사회에서 제대로 한 사람의 몫을 해내며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한다는 점은 같다. 부모는 언젠가 자식의 곁을 먼저 떠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자신의 꿈과 목표를 향해 긍정적으로 나아갈 수 있는 '강함'과 타인에 대한 배려를 잊지 않는 사람이 되기를 바라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이 책은 야외체험활동을 중심으로 유아 및 초등학생을 교육하는 '하나마루 학습회'라는 학습시설의 대표와 직원이 집필하였다. 일본 전국에 132개의 사무소와 317개의 교실을 운영 중인 하나마루 학습회는, 훗날 스스로 경제활동을 할 수 있는 자립적인 사람, 다른 이를 위할 줄 아는 매력적인 사람을 키워내는 것이 최종 목표다. 공부는 곧잘 하지만 친구를 사귀는 것은 서툰 아이, 자기 생각대로 되지 않으면 울거나 화내는 아이, 친구들이 괴롭힐 때 하지 말라는 말을 못 하는 아이, 벌레를 무서워하거나 땅에 닿는 것을 더럽다며 싫어하는 아이에게 특히 필요하다. 또한 또래 아이들에 비해 생각이 어린 아이, 초등학교에 입학할 나이인데도 자기 일을 스스로 못하는 아이, 칭찬하면 거만해지고 혼내면 심통을 내 다루기 어려운 아이, 이기적이고 눈치 없는 아이 때문에 고민 중인 부모라면 반드시 읽어보기를 바란다.

책의 전반부에서는 왜 자립적이고 이타적인 사람으로 자라야 하는지 소개한 뒤에,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4세~9세에 기초 생활 능력을 어떻게 키워줄 수 있는지 보다 상세히 논하였다. 후반부에는 칭찬을 아끼워하지 않기, 대화 도중에 이야기를 요약하는 방법을 배우도록 하기, 공부하라고 재촉하지 않기, 애매한 말을 사용함으로써 아이가 스스로 생각하도록 하기, 아이의 일정을 부모가 세우지 않기 등 가정에서 할 수 있는 교육 비결을 핵심 포인트 위주로 제시하였다. 또한 자녀의 친구가 품행이 좋지 않은 아이일 때, 아이의 성격이 너무 섬세하고 예민한 경우, 딸이 아빠를 좋아하지 않을 때, 한 부모 가정이라서 양친 역할 부담이 불가능할 때 등 곤란한 고민에 대한 대처 방법을 조언하여 유용하다.

하나마루 학습회 식 육아법은, 아이와 약간 거리를 두고 성장과 변화를 지켜보되 지나친 관심을 자제하는 '인공위성 맘'과 뜻을 같이 한다. 자신의 인생은 자기 힘으로 만들어 나가는 사람으로 키울 수 있도록 함께 고민하고 힌트를 줄 책이다.

<목차소개>

서장: 좋게도 나쁘게도, 말은 상대방에게 <전하는 것> 그리고 <남는 것>

제 1장: <부모가 없어도 훌륭하게 살아갈 수 있는> 아이란?

제 2장: 4~9세에, 인생을 살아갈 기초 능력이 정해진다!

제 3장: 가정에서 할 수 있다! 아이의 <학력>과 <지성>을 향상시키는 법

제 4장: 이럴 때에는 어떻게 할까? 하나마루 학습회 식, 곤란한 아이 해결법

<저자소개>

미노우치 켄지

1973년생. 18세에 야외 체험 아르바이트를 시작하여 2004년에는 풍부한 실적을 인정받아 하나마루 학습회에 입사하였다. 입사 2년차에 하나마루 학습회 야외체험부 부장으로 임명되어 현재에 이르렀으며, 5만 명이 넘는 아이들의 운명을 도맡고 있다. 아이와 학부모에게 '파이어'라는 애칭으로 친숙하게 불리며, 하나마루 학습회의 일본에서 가장 유명한 야외체험교육의 기반을 구축했다.

야외체험은 자연 속에서 지내는 체험뿐 아니라, <부모와 연락 일절 금지>, <친구들끼리 참가하는 것 금지>라는 새로운 룰을 적용해 <미니 사회> 체험을 쌓는 것을 중시한다. 장래에 사회에 나가 밥벌이를 할 수 있는 인간을 키우는 것에 주력하고 있다. 유치원, 공립 초등학교, 지방자치단체에서 다수의 강연의뢰를 받고 있다.

타카하마 마사노부

1959년생. 하나마루 학습회의 대표.

도쿄대학을 졸업하고 재수학원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던 중, 학력 고민과 히키코모리 등의 여러 문제는 사고력과 생활력 부족이 원인이며 유아기의 환경과 체험에서 비롯된다고 확신하였다. 1993년에 유아~초등학생 대상 학습교실 <하나마루 학습회>를 설립, 유아교육에 필요한 것은 다양한 체험 축적임을 제창하고 있다. 《진짜 머리 좋은 아이로 키우는 방법》, 《공부가 좋아지는 하나마루 학습회의 육아법》등 다수의 저서가 있다.

No.20160601-005

제목: 가까운 사람이 우울해 보일 때 읽는 책

저자: 와다 히데키

페이지수: 191

장르: 건강

출간일: 2016년 04월 19일



<내용소개>

우울증을 정확히 알고, 본인 및 주위 사람의 우울함을 예방 및 치료할 수 있도록 도와줄 책

국민건강보험공단의 통계자료에 따르면, 2010년에서 2015년 약 5년간 우울증으로 병원을 찾은 환자의 수가 16%나 증가했다고 한다. 2015년 전체 우울증 환자 중 40만 명이 여성, 19만 명이 남성이었고 20대 청년층부터 80대 노년층까지 진료 횟수가 모두 늘어난 것으로 조사되었다. 다소의 우울함은 평범한 사람들 누구나 느끼지만 그 중 특정 증상이 2주 이상 지속된다면 질환으로 진단될 수 있다. 심리상태가 건강한 사람은 울적한 기분에 빠져도 스스로 헤어나올 수 있다. 그러나 우울함 때문에 정상적인 생활을 유지하는 것을 어려워하며 헤어나올 수 없는 고통 속에서 괴로워하는 단계에 이르렀다면 주위 사람들과 의학의 도움이 필요하다. 방치되면 최악의 경우 스스로 목숨을 끊거나 다른 이를 해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그런 안타까운 사례들을 뉴스에서 종종 접할 수 있다.

언제든 자신과 주위에 닥쳐올 수 있는 우울증을 슬기롭게 대처할 수 있도록, '꼭 알아둬야 할 심리치료의 요점'을 현직 정신과 의사가 한 권의 책으로 정리하였다. 우울증을 앓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만 가는 추세이고, 그로 인한 피해 사례들도 증가하고 있기에 우리는 이 문제를 사회 전체의 문제로 인지하고 항상 자신의 가족과 주변인을 관심 어린 눈으로 지켜봐야 한다. 본문에서 저자는 우선 우울증에 대해 사람들이 갖고 있는 잘못된 편견과 오해를 고쳐주며, 만약 누군가 언행에 변화를 보이며 우울해한다면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알려준다. 우울증에 동반되는 불면증과 식욕 감소 현상은 몸 속 세로토닌을 고갈 시켜 다시 우울함을 배가시키는 악순환을 만들어내는 것이 특징이다. 주기적으로 스트레스 정도를 체크함으로써 우울증으로 번지는 것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자신과 가까운 사람이 우울증에 걸린 경우를 9개 케이스 스터디를 통해 해설한다. 어느 날 갑자기 남편이, 아내가, 약혼자가, 동료 및 부하가 심신의 변화를 견디지 못하고 우울증에 걸렸다가 치료를 통해 극복해 낸 사례들이 공개 된다. 또한 청년~중장년층에 비해 이 질병에 취약한 70대 이상 노인과 아이들의 우울증은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에 대해서도 알 수 있다. 우울증 치료에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기 때문에 환자의 상황과 정도를 고려해 가장 효과적인 것을 선택하게 된다.

심리 질환은 겉으로 드러나지 않으므로 시작과 끝을 알기 어렵고 때로는 본인도 지각하지 못한다. 다른 세상 이야기인줄 알았던 우울증이 현실로 닥쳐왔을 때, 모두의 부담과 스트레스를 덜어줄 유용한 책이다.

<목차소개>

제 1장: 조기 발견과 가족의 이해가 열쇠!

제 2장: 스트레스 체크로 우울증을 미연에 방지한다

제 3장: 혹시, 당신의 가까운 사람이 우울해졌다면 - 9개의 케이스 스터디

제 4장: 우울증 치료에는 선택지가 있다!

<저자소개>

와다 히데키

정신과 의사. 1960 년 오사카부에서 태어났다. 도쿄대학 의학부를 졸업하고 도쿄대학 의학부 부속 병원 정신신경과 조수, 미국 칼 메닝거 정신의학학교 국제 펠로우를 거쳐 요쿠후카이 병원에서 노년정신의학을 연구했다. 국제의료복지대학 대학원(임상심리학 전공)교수. 히토츠바시대학 경제학부 비상근 강사, 가와사키 사이와이 병원 정신과 고문. 와다 히데키 마음과 신체 클리닉 원장. 《감정적이 되지 않는 책》, 《수험 신데렐라》등 다수의 저서가 있다.

No.20160601-00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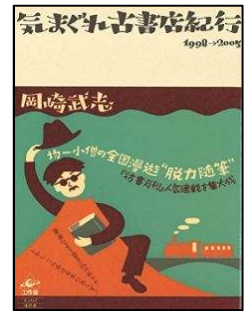
제목: 변덕쟁이의 헌책방 기행

저자: 오카자키 다케시

페이지수: 425

장르: 에세이

출간일: 2006년 02월



<내용소개>

유명 서평가가 1998년부터 2005년까지, 8년 간에 걸쳐 방문한 헌책방 기행문

이 책의 저자 '오카자키 다케시'는 3만권의 장서를 보유한 것으로 유명한 일본의 서평가다. 2014년 한국에 발간돼 인기를 모았던 에세이 《장서의 괴로움》에서는 책에 짓눌린 생활의 고충과 더불어, 그간 모아 온 책들과 이별하는 괴로운 여정을 담아낸 바 있다. 헌책방을 부르거나, 책을 위한 집을 다시 짓거나, 1인 헌책시장을 열어 책을 처분하는 등 '건강한 책장'을 갖기 위해 벌인 고군분투기 속에 유명 작가부터 일반인에 이르기까지 책 더미와 이별하는 특별한 장서술을 흥미진진하게 소개하였다.

《변덕쟁이의 헌책방 기행》은 《장서의 괴로움》보다 몇 년 앞선 2006년에 첫 발행된 책이다. 다양한 장르의 헌책에 애착을 갖고 수집하는 작가가, 일본 전국의 헌책방을 돌며 보고 느낀 점을 고스란히 담았다. 숨겨져 있던 헌책방을 알리는 기행문이자 헌 책에 대한 에세이다. 이제까지 가 본 곳 외에, 처음 보는 역에 내려 처음 가보는 마을을 걸어 다녀보자는 의도에서 시작된 탐방기로서 한 월간지에 인기리에 연재했던 글들을 모아 정리했다. 방문한 곳은 연도별, 월별로 분류되어 있으며 평균 월 1회, 해마다 최소 8곳 이상을 소개하고 있다. 가게마다 안고 있는 분위기와 특징이 정감 있고 간결한 문체로 표현되어 있다. 여기저기 직접 손으로 쓴 듯한 메모와 위치를 나타낸 간이 지도 및 일러스트가 남겨져 있어 그의 수첩을 훑쳐보는 듯한 느낌이 든다. 작가는 직업 때문에 겪는 즐거움과 괴로움, 가족 이야기 같은 개인사, 고서 업계의 동향 등이 자연스럽게 엮여 있다. 작가가 다른 작가에게 기증한 책이 가치 높은 고서로서 판매되고 있었다는 에피소드 등 예상하지 못한 이야기들로 즐거움을 주기도 한다. 이 책을 읽노라면 작가가 헌 책을 포함한 책과 책방을 얼마나 사랑하고 애지중지 하는지 충분히 알 수 있을 것이다.

한국에는 서울의 평화시장 청계천 근처, 인천 배다리 마을, 부산 보수동 쪽에 나름 규모가 큰 헌책방 거리가 조성되어 있다. 대신 예전엔 동네에서 볼 수 있었던 아늑하고 조그마한 책방들은 많이 사라졌다. 요즘에는 독자들이 전자책으로 많이 옮겨가기도 했고, 몇몇 서점에서 온-오프라인 중고서점을 체인처럼 운영하고 있다. 오카자키 다케시가 일본 구석구석에 여전히 자리잡고 있는 헌 책방들을 자랑하듯 소개하는 글을 읽으면 아직 고유한 특징을 보존하고 있는 일본의 헌

책 문화가 부럽게 다가오기도 한다. 책을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흥미롭게 읽어볼 수 있는 타이틀이다.

<목차소개>

제 1부: 1998년 / 제 2부: 1999년 / 제 3부: 2000년 / 제 4부: 2001년 / 제 5부: 2002년 / 제 6부: 2003년 / 제 7부: 2004년 / 제 8부: 2005년

<저자소개>

오카자키 다케시

작가 겸 편집자. <균일소승>, <문고왕>, <진보초 라이터>등의 닉네임을 갖고 있다. 1957년 오사카 히라카타 시에서 태어났으며, 리츠메이칸을 졸업하고 국어교사로 7년간 근무했다. 1990년 도쿄로 이주한 뒤 신문, 잡지 등에서 서평을 중심으로 집필활동을 계속하는 한편, 라디오 프로그램과 대학 강좌 등으로도 활약하였다. 책 미니커뮤니케이션 잡지 《sumus》동인. 헌 책은 사소설, 유머 소설, 연예, 출판 매스컴 등의 분야를 수집하고 있다. 저서로는 《문고본 잡학 노트》, 《헌책으로 산책》, 《헌 책 극락 가이드》, 《헌 책 생활 독본》, '카쿠타 미츠요'와의 공저 《헌책도장》 등이 있다.

No.20160601-007

제목: 초 반지성주의 입문

저자: 오다지마 타카시

페이지수: 304

장르: 교양/사회

출간일: 2015년 09월 15일



<내용소개>

유행처럼 번지고 있는 '반지성주의' 양상의 실체

지난해부터 '반지성주의(反知性主義)'라는 용어가 조금씩 들려오기 시작했다. 지성인, 지식인, 주지주의에 대해 적대적인 태도를 보이며 불신하는 것을 뜻하는 말이다. 주로 교육, 철학, 문학, 예술, 과학 등을 쓸데없는 학문으로 멸시하며 조롱하는 형태로 드러난다. 반지성주의자들은 정치적 학문적 엘리트에 맞서는 일반 대중의 옹호자임을 자처하고, 배운 자들은 절대 다수와 동떨어져 있으며 정치적 담론과 고등 교육을 독점하는 계층으로 지칭된다. 지식인은 '자신의 믿음을 강요하는 자'에 불과하며 '올바른 하나의 의견'을 정립해 본래의 질서를 회복하자는 움직임이다. 얼핏 긍정적인 것 같지만, 독재 정치에서 정치적 이견을 억제하는 수단으로 쓰이기도 했다.

일본에서도 지난해 말부터 '반지성주의'라는 용어가 유행처럼 번졌다고 한다. 저자는 해당 용어의 의미가 정확하지 않고 애매함을 지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말에서 느껴지는 강렬한 이미지 그리고 '지성'이라는 이름의 체제와 시스템에 반발하고 싶은 사람들의 심리에 힘입어 많이 쓰이고 있는 것이라 지적한다. 이 책은 '반지성주의'를 옹호하는 입문서가 아니다. 일본 사회의 반지성주의를 고발하는 내용이다. 진심과 현실을 들먹이며 중요하고 복잡한 이야기를 멋대로 단순화시킨 뒤 모호하게 만들어버리는 사람들, 그에 기승한 사람들을 비판한다. 최근 뉴스와 인터넷 유행을 소재로 삼아 <닛케이 비즈니스 온라인>에 연재했던 글들을 다시 정리한 것으로, 정치 및 사회적인 이야기를 딱딱하지 않고 흥미롭게 풀어냈다. 제물로 정해진 이상 원인 해명이나 진상 따위는 상관없이 그저 사죄만 하면 된다는 식의 '제물 지향', 하나의 사회 속에서는 모두 같은 방향으로 행동해야 한다고 강요하는 '유대 지향', 그 내용이 무례하든 비인권적이든 자신들은 솔직한 속내를 말하고 있는 것이니 항상 옳다는 '본심 지향', 어쨌든 기회를 줬으니 살리지 못한 것은 상대방 개인의 책임이라는 '비정 지향', 돌아오는 이득이 없으면 하지 않는 태도를 아베 정권의 교육 개혁-갑자원-일본 만세류 콘텐츠의 직선 관계에서 되짚어보는 '공리 지향' 등 총 다섯 개의 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추가로 《반지성주의: 미국을 움직이는 열병의 정체》의 저자 '모리모토 안리'와 일본의 종교와 반지성주의를 주제로 나눈 대담도 수록하였다.

린치에 가까운 악성 댓글 소동, 자신과 상관 없는 일은 모두 피해자 개인의 책임으로 치부해버

리는 태도 등은 요즘 한국 사회에서도 자주 나타나고 문제 되고 있는 경향이다. 시대의 부정적인 양상을 날카롭게 다룬 이 책을 통해, 무의식적으로 파고드는 반지성주의에 대비해 보자.

<목차소개>

초 반지성주의 01: 제물 지향 <선택된 것이니 단념하고, 추태를 보이지 마라>

초 반지성주의 02: 유대 지향 <모두 같이 피고, 함께 떨어진다>

초 반지성주의 03: 본심 지향 <진심을 말하고 있으니까 어쩔 수 없지?>

초 반지성주의 04: 비정 지향 <그러니까, 기회는 제대로 줬어>

초 반지성주의 05: 공리 지향 <그건 대체 어떤 의미가 있어서 하고 있는 거야?>

대담: 일본의 <종교>와 <반지성주의> 국제 기독교대학부학장 모리모토 안리 씨와 함께

<저자소개>

오다지마 타카시

1956 년 도쿄 아키바에서 태어났다. 와세다대학 졸업 후 식품회사에 입사하였으나 1 년 후 퇴직하였다. 초등학교 사무원 수습, 라디오국 AD 를 거쳐 테크니컬 라이터가 되었으며 1988 년 《내 마음은 IC 가 아니다》가 인기를 얻었다. 컴퓨터, TV 프로그램, 축구부터 갑자원에 씨름대회, 학력회사, 헌법 9 조, 아베정권에 자본주의와, 현대사회의 '상식'에 약간 치우쳐져 쳐들어갔다가 들춰놓는 식의 칼럼니스트로 활약 중이다. 저서로는 《사람은 왜 학력에 얽매이는 것일까》, 《지뢰를 밟는 용기》, 《더 지뢰를 밟는 용기》, 《오다지마 타카시의 칼럼의 길》, 《시에 만세!》, 《친구 요청에 답변이 오지 않는 오후》, 《변두리의 문체론》등 다수가 있다.

No.20160601-00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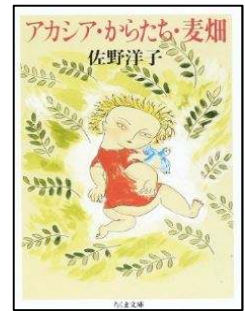
제목: 아카시아, 탕자, 보리밭: 사노 요코의 유년 시절 에세이

저자: 사노 요코

페이지수: 228

장르: 에세이

출간일: 1992년 10월



<내용소개>

사노 요코가 자신의 어린 시절을 되돌아보며 남긴 에세이

‘어린 시절’은 지나고 나서 한참 후에 되돌아보면 모순적인 시기이다. 아는 것은 적지만 더 많은 것을 순수하게 기뻐하면 느끼고 받아들일 수 있었기에 다시금 되돌아가보고 싶은 그리움의 시절이다. 반면 아이들만의 못된 괴롭힘이나 어른들의 거짓말에 상처를 받은 기억 또한 있으므로 정말 되돌아가기에는 머뭇거려지는 시절이기도 하다. 점점 나이를 먹어갈수록 희미해지는 어린 시절의 기억에는 어떤 것들이 남아있을까? 주위 환경과 사건에 대해 ‘아이였던 나’는 무엇을 바라보고 생각했을까?

이 책의 저자인 ‘사노 요코’는 작가 겸 일러스트레이터다. 독자들의 눈물을 쏙 뺀 《100만 번 산 고양이》 같은 그림책을 그리며 세계적인 사랑을 받은 동화작가이기도 했고, 자신의 이야기를 다소 까칠하고 발칙하면서도 명랑하게 풀어놓아 일본은 물론 한국에서도 큰 인기를 모은 에세이 작가이기도 하다. 지난 2010년 72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지만, 암으로 2년 시한부 인생을 선고 받은 뒤 ‘나의 일상은 더 명랑해졌다’라는 카피를 내세우며 발표했던 《사는 게 뭐라고》는 2015년 한국에 발간되면서 또 화제가 되었다. 예상을 넘어선 솔직함과 격렬함이 녹아있는 다른 에세이 책들이 계속하여 한국에 출간되고 있다.

《아카시아, 탕자, 보리밭》은 1983년에 세상에 나온, 시간이 좀 흐른 글들이 담겨있는 에세이 집이다. 1992년 문고판으로 다시 펴내며 덧붙인 후기에서는 ‘지금 쓴다면 이런 글들은 쓰지 않을 텐데’라고 했다. 바꿔 말하면, 그 때가 아니면 쓰지 못했을 글들이라는 뜻이다. 중국 베이징에서 지냈던 어린 시절 옆집에 양녀로 왔던 아이의 이야기, 중국 대련으로 이사해서 지냈던 때의 이야기, 종전 후 일본으로 돌아와 보냈던 일상의 한 부분, 정말 눈 앞에 존재했던 것 같은 인어의 추억 등 유년의 단면들이 펼쳐진다. 그녀 또한 ‘유년 시절’을 돌아가고 싶으면서도 가장 돌아가고 싶지 않은 시기로 묘사하였다. 아이들에게 따돌림을 당해서 울었고, 운 얼굴을 보이지 않으려 애썼던 때도 있었기 때문이다. 달콤하고도 힘들었던 당시의 이야기들을 간결하고 인상적인 문체들로 풀어놓았다. 슬픈 에피소드도 시니컬한 개그로 마무리하는 것이 사노 요코답다.

저자의 시대적 배경은 현재 젊은 독자 어렸을 때와는 꽤 시간적 차이가 난다. 마치 영화나 드라마에서 보던 옛날로, 또는 자신의 어린 시절을 향해 시간 여행을 하게 해 줄 마법의 에세이가 될 것이다.

<목차소개>

양자 / 바리칸 / 방공호 / 벽난로 / 목 / 못 / 보리밭 / 우비/ 백일초 / 강 등

<저자소개>

사노 요코

1938 년 베이징에서 태어났다. 무사시노 미술대학을 졸업하고 그림책, 소설, 에세이 각 분야에서 활약하였다. 2003 년 자수포장을 받았으며 2004 년 고바야시 히데오상을 수상하였다. 《100 만번 산 고양이》, 《아저씨 우산》, 《내가 여동생이었을 때》, 《하느님도 부처님도 없다》, 《나의 엄마 시즈코》, 《문제가 있습니다》 등이 있다.

No.20160601-009

제목: 포켓 천문 Q&A

저자: 와타나베 카츠미

페이지수: 208

장르: 아동 교육

출간일: 2009년 07월 10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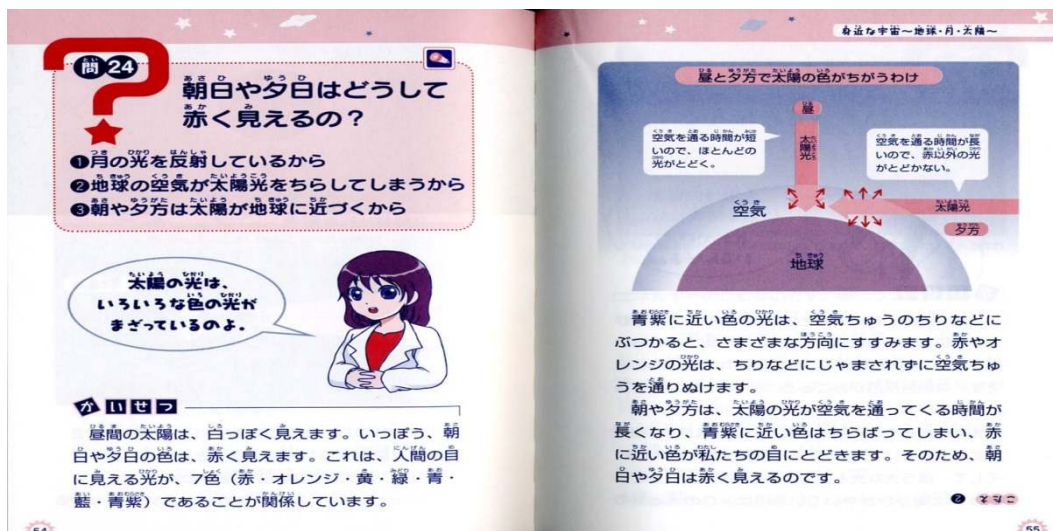
<내용소개>

천문에 관한 기본적인 궁금증을 100개 항목의 Q&A로 정리한 책입니다

지구와 달, 그리고 태양을 비롯해 그 주위를 맴도는 수성, 금성, 화성, 목성, 토성, 천왕성, 해왕성 등 태양계 행성들은 눈으로 직접 볼 수 없는 먼 곳에 있습니다. 그 때문인지 아동들이 왕성한 호기심을 갖고 상상력을 펼쳐보는 세상이기도 합니다. 과학기술이 발달하면서 언젠가는 영화에 나오는 것처럼 민간인들도 우주로 여행을 떠날 그 날이 오길 기다립니다.

이 책은 아동들이 궁금해할 만한 항목을 100개 선정하여 Q&A형식으로 정리한 것입니다. 우주라는 공간, 지구와 달 그리고 태양, 우주 상의 인공위성과 우주비행사들, 태양계 행성과 그 너머에 이르기까지 점차 멀리 나아가는 구성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구 같은 별이 또 있다는 것이 정말인가요?", "로켓 최고 속도는 어느 정도일까요?", "화성과 목성 사이에 수많은 별들이 있다는데 진짜인가요?" 등 질문이 상단에 나오고, 바로 밑에 해설이 쓰여 있어 답을 확인하며 배울 수 있습니다. 구조 이미지와 증거사진을 함께 수록하여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내용 구성과 레이아웃을 보면 아동 대상 서적이지만, 천문학을 처음 배우거나 지식을 재확인하려는 사람에게도 좋을 책입니다.

<본문 이미지>



問 61

宇宙船のなかでは、
かならず運動をするって、
ほんと？



無重力状態では
運動不足に
なるらしいよ。

か い せ つ

わたしたちは、地上ではさまざまな筋肉をつかって生活しています。しかし、無重力状態では、筋肉をあまりつかう必要がないので、筋肉がおとろえてしまいます。

宇宙での長期の生活は、骨にも影響をあたえます。骨は、重力などによって圧縮される刺激が少なくなると、カルシウムがおしっこや大便といっしょに体外に排出されてしまいます。そのため、無重力状態の宇宙では、骨がもろくおれやすくなってしま

宇宙にいこう！



ランニングをする宇宙飛行士。
からだがかたないように、ゴム
バンドでおさえている。

宇宙で運動ちゅうの毛利閣宇宙飛行士。

います。このような問題を克服するため、宇宙飛行士は、毎日かかさず、1〜2時間ほどの運動をおこないます。

問 92

どんな星にも寿命が
あるって、ほんと？



おもしろい星は最終に
大爆発することが
あるらしいわ。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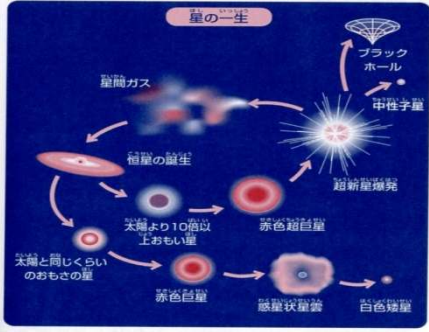
か い せ つ

星（恒星）の寿命は、おもさでまします。おもしろい星ほど、星のなかの燃料をたくさんつかってかがやくため、寿命は短くなります。

太陽よりも10倍以上おもしろい星は、最終に超新星爆発という大爆発をおこして、中性子星になります。このときにまきちらされたガスやちりがあつまって、星雲になります。そして、ふたたび、この星雲から星が生まれます。

太陽より30倍以上おもしろい星は、超新星爆発のあ

もっと深くへ



星の一生

星間ガス

恒星の誕生

太陽より10倍以上
おもしろい星

赤色巨星

超新星爆発

中性子星

ブラックホール

白色矮星

惑星状星雲

とに、ブラックホール（204ページ参照）になります。おもさによって星の寿命にはちがいはありますが、いずれも燃料がなくなったときに、星の寿命です。

※半径約10kmの高密度の星。

<목차소개>

- 제 1장: 우주란 어떤 곳?
- 제 2장: 가까운 우주 - 지구·달·태양
- 제 3장: 우주로 가자!
- 제 4장: 태양계 여행
- 제 5장: 더 먼 곳으로

<저자소개>

와타나베 카즈미

1946 년 니가타현 사도가 섬에서 태어났다. 1974 년에 우주개발사업단(현: JAXA)에 입사한 후, 일관되게 홍보 및 보급 업무에 종사하였다. 최근에는 특히 초중고생 교육의 장으로 우주개발을

보급하는 것에 주력하고 있으며, JAXA 내 조직으로서 2005 년에 <우주교육 센터>를 기획하고 우주교육추진실장으로서 활동해왔다. 2007 년 7 월부터는 재단법인 일본 우주 포럼에서 <우주와 우주 개발>의 홍보 및 보급 활동을 하고 있다.

No.20160601-010

제목: 연못의 소리

저자: 카와카미 타카코

페이지수: 20

장르: 아동 그림책

출간일: 2016년 06월



<내용소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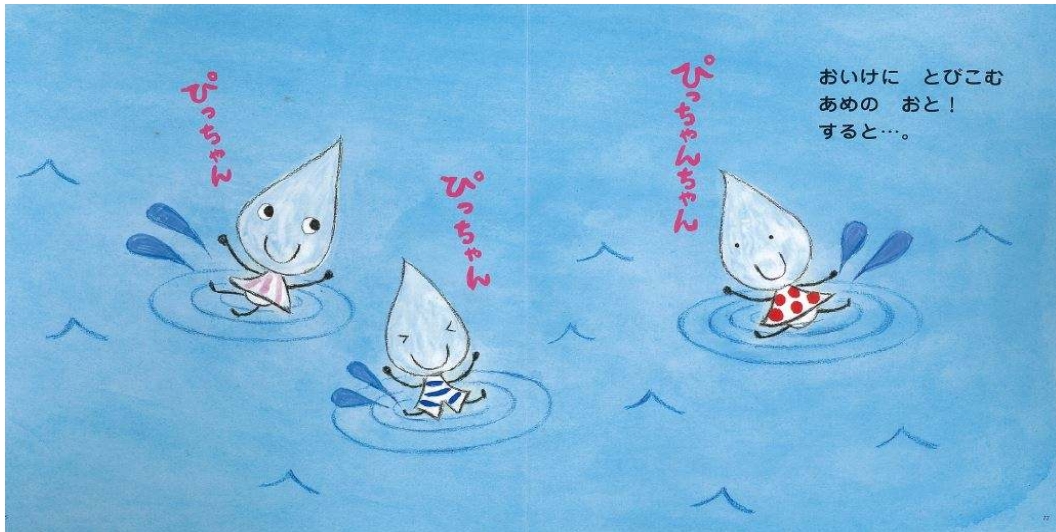
개구리와 빗방울이 연못으로 뛰어들 때 나는 소리를 느낄 수 있는 그림책입니다

개구리 '케로'가 연못에 뛰어들려 합니다. 어떤 소리가 날까요? 작게 '퐁당'하는 소리가 납니다. 다음에는 좀 더 큰 개구리 '구와와'가 연못에 뛰어들려 합니다. 어떤 소리가 날까요? 크게 '퐁당'하는 소리가 납니다. 그런데 구와와가 바로 나타나지 않습니다. 잠시 후, 기다리던 케로 앞에 구와와가 '어푸'하는 소리를 내며 물 속에서 고개를 내밀고 올라왔습니다. 수면의 커다란 이파리 위에서 휴식을 취하던 케로와 구와와의 귀에 작고 귀여운 소리가 들려옵니다. '퐁-'하는 소리가 여러 번 들리는데 정체가 무엇일까요. 찾아가보니, 하늘에서 내려와 연못에 뛰어든 빗방울들이 떨어지는 소리였습니다. 비가 점점 더 많이 내리기 시작하자, 여기저기서 빗방울들이 연못 속으로 뛰어드는 소리들도 늘어났습니다. 신난 케로와 구와와도 연못 속으로 뛰어들자, 퐁당, 퐁당, 퐁 하는 여러 소리들이 뒤섞입니다.

연못을 배경으로 한 짧은 동화를 읽으며, 아이들은 무언가가 물 속으로 뛰어들 때 나는 소리를 배우고 귀 기울이게 될 것입니다. 귀여운 일러스트와 함께 보는 재미와 소리 내어 읽는 재미를 동시에 줄 것입니다.

<본문 이미지>





<저자소개>

카와카미 타카코

1967년 도쿄에서 태어났다. 세프 모드 세미나를 졸업, 겐코샤(玄光社) 일러스트레이션 1995년 더 초이스 연도상 입선 수상하였다. 그림책, 아동서 삽화, 잡지 일러스트, 서적 삽화 등을 중심으로 활동하였다. 수채화 외에 유리그림, 판화도 제작발표하고 있다.